

茶

건강 | 茶 한 잔의 여백



(4) 세계의 차 문화(일본)

형식미의 가장 심화된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일본 다도



이병도_극작가

일본에 차가 전래된 것은 헤이안(平安) 시대인 9세기 초, 하지만 12세기 말 송나라로 유학을 갔던 예사이(榮西) 선사가 차나무를 들여오으로써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다원은 온난다습한 남쪽지방에 주로 개발되어 있고,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은 1,725kg/ha로서 세계 제일이며, 차 총소비량은 연간 13만 정도로서 세계 4위권 정도이다.

요즘 들어 일본은 인력난 등 생산원가의 증가로 인해 차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설비의 자동화나 중국, 호주 등지의 현지농장 설립 등으로 그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차 소비에 대한 여러 형태의 다변화로 차 산업은 아직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허전함”으로 완성된 일본 다도

밥을 먹거나 차 마시는 것과 같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의미로서 ‘항차반사(恒茶飯事)’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평범한 일상을 고도의 예술성으로 승화한 것이 일본 특유의 다도(茶道) 문화이다.

그래서 이 다도를 다른 말로 예도(藝道)라고도 하는데, 16세기 풍신수길 시대의 고승이었던 센노 리큐(千利休)가 다도를 집대성하였고, 무사도(武士道, 사무라이정신)와 함께, ‘국화(다도)와 칼(무사도)’로 비유될 수 있는, 일본 전통의 맥을 잇는 양대 정신의 하나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일본 다도의 발단은 중국 송, 원대의 문화를 흡수하여 중국 다구(茶具)를 좋아하면서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즐기자 한 일단의 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값 비싸고 희귀했던 중국 다구를 대신하여 자국의 다구나 특히 우리 한반도의 도자기, 그 중 특히 막사발(일본 다인들의 ‘차잔은 고려’라는 고백을 대표하는 ‘이도다기’ 등에서는 후에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중국 것과 같은 섬세한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그 투박하고 거친 한반도의 도자기 속엔 중국 도자기에서는 맛볼 수 없는 따스함이 넘쳐났고, 이를 그들의 다도에 접목시켰다.

이런 것들로 하여 예법 보다는 ‘와케세자쿠(和敬清寂: 타인을 화목한 마음과 공경으로 대하고, 마음을 깨끗하고 자유롭게 또 다구를 조심스럽고 청결하게 다룬다는 의미)’를 더욱 중



히 여기는, 일본 다도의 핵심인 '와비(他)사상'이 탄생했다.

와비의 본 뜻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허전함', '수척함' 등으로, 일본 다도 속의 와비사상은, 아집과 욕망으로 사물의 깊은 경지에 빠져든 후, 다시 거기에서 벗어나 담백해지는 깨달음의 높은 경지, 또 정직하고 신중하며 교만하지 않는 경지를 일컫는다.

이와 같이 일본의 다도는 우리의 편견처럼 예법과 형식만을 따지는 그런 것은 아닌, 이를 또 다시 넘어서려는 고양된 의식이다. 일본 형식미의 아름다움은 '노'(일본의 대표적 가면극)나 '가부키'(에도 시대에 발달된 전통 민중극)에도 있지만, 일본인들은 "형식의 가장 심화된 아름다움"을 이 다도에서 찾으려 한다.

우리나라의 초가를 본뜬 일본의 국보급 전통 다실

또 일본인들은 다도를 '쓰우끼야(數寄)'라고도 하는데 이는 '불균형'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들이 쓰우끼야(數寄屋)라 부르는 다실의 창문이나 처마 등도 일본의 보편적인 가옥과는 달리 불균형적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는 자신들 또한 무능하고 불완전하다고 자인하는 가운데, 불완전함을 최상의 미의식으로 추구하는 일본인들의 경향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국보인 '센노 리큐(千利休)'의 다실도 그 시대의 일본 전통 가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초가를 본뜬 것임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 다실은 출입문을 기어 들어가야만 하도록 낮게 만들었는데, 이는 소박함의 표시와 더불어 당시의 살벌한(?) 손님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손님이 무사인 경우, 무기는 반드시 다실 밖에 있는 시렁에 걸어두어야만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근대 일본의 저명한 미술평론가이며 다인이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1961)의 시 한 편으로 일본 다도의 한 단면을 엿본다.

점차심지(點茶心指)

한잔 올리고자 / 일신(一身)을 버린 성인에게/ 불당 안의 수행자에게/ 맑은 마음의 비구니에게 / 수도하는 소사(小使)에게 / 가난한 선비에게/ 황혼길의佳人(佳人)에게 / 순박한 젊은이에게 / 마음씨 고운 아가씨에게/ 꾸밈 없는 주인에게 / 검소한 시골사람에게 권하지 말지어다 / 졸부에게는 / 가짜 스승에게는 / 새파란 다동(茶童)에게는 / 잘난 체하는 병아리 다인에게는 / 빠져버린 다도광(狂)에게는 / 분별 없는 쇼핑광에게는 / 오만한 학자에게는 / 사치하는 마누라에게는 / 탐욕 많은 상인에게는 / 아첨하는 무리에게는

(이병도 극작가 : jcintec@naver.com)

